

# 주토피아는 실재하는가

인류사를 통해 바라본 수인 종족의 다양성에 대한 담론

Ria Fox

## I. 서론: 태초에 수인이 있었다

많은 창작물에서 수인을 등장시키면서 이제 수인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던전 앤 파이터>의 겹쟁이 사막여우 수인이라던가, <강철의 연금술사>의 ‘하인켈’ 등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에 수인은 조연으로, 때때로는 주연으로 등장한다.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라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인류의 궁금증과 상상에 대한 산물로서 나타난 수인은 모습 그대로 ‘동물과 인간의 특징을 모두 가진’ 종족으로 인식되고는 한다. 실제로 여러 창작물에서 그들은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이룩하였으며 현대의 인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지능 또한 인간과 같을 것이고, 인류와 비슷한 문명의 역사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인간 또한 태

초에는 여러 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단 한 종만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수인종이 실재한다는 가정 하에 그들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 II. 동물과 인간, 그리고 수인

우선 수인이 동물이나 인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수인은 외모, 인간과 동물 사이를 넘나드는 생활 패턴, 행동 때문에 흔히 동물과 인간의 중간 정도의 생명체로 많이 알려져 있다. 많은 창작물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 조작이나, 인간의 변화에 의한 생물, 또는 지능이 있는 동물 정도로 표현된다. 물론 수인은 동물의 신체적 특징과, 인간의 골격과 지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리너구리의 예를 보면 신체적인 특징을 제외한 행동 패턴이나 특성이 완벽히 다른 별개의 생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다.

오리너구리는 오리와 너구리의 중간 정도에 있는 생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늘두더지 Genus *Tachyglossus*와 태반류, 그리고 유대목과 같은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1]. 또한 포유강 식육목에 속하는 너구리와 조강 기러기목에 속하는 오리와는 달리 포유강 단공목에 속하는 오리너구리는 너구리와 오리의 생활 패턴 또는 특성을 전혀 닮지 않았다. 형태를 보더라도 주둥이가 오리와 비슷하게 생겨 “오리너구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몸은 수달과 비슷하며 꼬리는 비버와 닮았으며, 강이나 연못 등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오어나 잡식성인 너구리와 달리 늪지에 살며 늪지 바닥을 부리로 파서 민물 새우나 곤충 유충, 민물 가재 등을 먹고 사는 육식성이다 [2]. 이와 같이 수인 또한 그 모티브가 되는 동물과 인간과는 완벽히 다른 생태를 가질 수 있으며, 그렇기에 단순히 동물과 인간 사이의 종족으로 보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수인은 인간과는 완벽하게 같은 역사를 걸어올 수 없다. 몸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서 같은 인간이라도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서 발달하는 문화는 꽤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악취가 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다 [3]. 액취증을 유발하는 대립 유전자 G와 아포크립탐샘의 분비가 적은 대립 유전자 A의 차이로 데오드란트 문화라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쉽게 볼 수 없

는 문화를 만들었듯이 수인과 인간은 같은 듯 하면서 다른 문화를 쌓아 나갔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인을 동물과 인간의 생활 패턴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그들만의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족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인간의 특징과 동물의 특징, 그리고 수인만의 특징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으며 문명을 이룩한 후에 동물의 특징을 버릴 것인가, 또는 문명을 포기하고 인간의 특징을 버릴 것인가도 고려할 만 하다.

고려해야 할 것 중 다른 하나는 수인 종족 중 개와 현대의 소, 그리고 돼지와 같은 ‘가축’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늑대를, 소는 들소를, 돼지는 야생 멧돼지 중 인간에게 친근한 종만 길들여 인간이 가축화 한 종들로 자연적으로는 분화되지 않는 종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축화된 동물들은 대부분 야생에서 살아남기 힘든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 중 하나가 바로 도베르만이다. 도베르만 핀셔라는 품종을 만들기 위해 인간은 몇 번이나 근친교배를 시켰고, 그로 인해서 dilated cardiomyopathy, cervical vertebral instability(CVI), von Willebrand's disease, prostatic disease와 같은 병을 얻을 확률이 심각하게 높아지며 [4], 다른 종에 비해서도 갈비뼈가 지나치게 커 쉽게 다치기 때문에 도베르만이라는 종은 야생에서 먹이 경쟁에 밀릴 수 밖에 없다.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 오늘날 집고양이의 조상으로 믿어지는 근동 야

생고양이 *Felis silvestris lybica* 종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 III. 인지혁명: 반목하는 종족들

늑대 수인, 고양이 수인, 토끼 수인…… 수인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동물 수만큼이나 많다. 어쩌면 두 개 이상의 동물이 섞여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새로운 동물의 수인일 수 있다. 영화 <주토피아>와 같이 많은 종류의 수인이 서로 조화롭게(어쩌면 차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활하는 세계를 꿈 꿀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자. 이렇게 많은 종의 수인들이 한 세계에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답은 ‘가능성은 있지만, 다양한 종족이 존재하긴 힘들다’이다.

현재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인간 종은 ‘호모 사피엔스’이다. 지난 1만 년간 우리 종은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 종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유일한 인류라고 생각하는 데에 익숙해 있다. 하지만 ‘인간’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호모 속에 속하는 동물’이고, 호모 속에는 사피엔스 외에도 여타의 종이 많이 존재했다[5]. 인류는 약 250만년 전 동부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했으며 그들은 고향을 떠나 여행을 시작해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정착하여 서로 다른 여러 종들이 생겨났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솔로엔시스’ 등의 적어도 6종의 다른 호모 속의 인간이 있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동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으로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인간 종은 점점 사라져갔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교체이론’과 ‘교배이론’이 있는데, 교체이론은 서로 다른 종의 인간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반감을 보였으며, 심지어 인종 학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와 다른 인간 종들은 해부학적으로 달랐으며 짝짓기 습관이나 체취까지도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서로에게 성적인 관심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교배이론’은 교체이론과 대립되는 견해로, 그들이 서로 끌려 성관계를 하고 뒤섞였다는 설이다. 최근 몇십 년은 교체이론이 이 분야의 상식이었으나, 게놈 프로젝트로 인해 실제로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와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각각 중동,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멜라네시아인, 호주 원주민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수인의 경우 서로 다른 종의 수인은 같은 종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 섞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배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교배이론이 교체이론을 대신하였다고 해서 사피엔스라는 종이 다른 종과 평화롭게 어울린 것은 아니었다. 다른 종이 멸종한 이유에 대한 가능성으로, 사피엔스의 기술과 사회적 능력이 우수한 덕분에 사냥과 채취에 더 능숙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피엔스 집단에 합류한 한두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멸종했기 때문에 사피엔스가 유일한 인간 종으로 남았다는 가능성 또한 있지만,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폭력과 대량학살을 유발했다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현대의 경우를 보아도 사피엔스 집단은 피부

색이나 언어, 종교의 작은 차이만으로도 곧잘 다른 집단을 몰살하는 것처럼, 원시의 사피엔스라고 해서 자신들과 전혀 다른 인간 종에게 이보다 더 관용적이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사피엔스가 다른 인간 종들과 차별화되었던 점은 바로 인지혁명이다. 인지혁명으로 인해 규모가 더 크고 응집력이 더 강한 집단을 만들 수 있었고, 또한 대단히 많은 숫자의 낮은 사람끼리 협력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사피엔스보다 더욱 뇌의 용량이 크고 신체가 강한 종족이라고 하더라도 수로 밀어붙이며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했던 사피엔스에게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수인종들은 모두 사피엔스와 같은 지능을 가진다고 앞에서 가정했었다. 이 말은 각각의 수인종에게 있어서 집단과 전술의 능력 차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동물들과는 달리 수인에게는 이족보행과 도구라는 발톱과 이빨을 대신할 무기가 존재하고, 이 때문에 육식성 수인과 초식성 수인의 절대적인 전투 능력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가정은 모든 수인종이 사피엔스만큼 큰 집단을 가졌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대부분의 수인종들이 문명 발달 이전에는 베이스가 되는 동물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수인종은 그들의 베이스가 되는 동물의 식성을 따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먹이 피라미드에 의해 육식성 수인들은 초식성 수인보다 더 적은 숫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적은 무리가 넓은 고정된 영역을 가지는 육식성 수인과 달리 초식성 수인은 고정된 영역

을 가진 종 또한 존재하지만, 바이슨과 같이 많은 무리가 유동적인 유랑 생활을 하는 종족 또한 존재한다[6]. 즉, 절대적으로 육식성 수인은 수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우와 같은 잡식성 수인의 경우 적은 수의 육식성 수인의 집단 형태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초식성 수인의 집단 형태를 따를 것인가? 원래의 사피엔스와 같은 식성을 가진다면 그 집단은 사피엔스의 집단과 가장 비슷할 것이다. 육식성 수인이 수렵을 하고, 초식성 수인이 채집을 한다면 잡식성 수인은 수렵과 채집을 모두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초식성 수인이나 육식성 수인에 비해서 좀 더 유동적인 식단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잡식성 수인의 집단이 가장 클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집단의 크기만으로는 어떤 종의 멸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진 도구와 식량 등의 전쟁 지속 능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식 능력이 경쟁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종족 내의 번식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면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것과 같이 도망쳐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터를 잡기 전에 전부 멸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번식력이 밀리는 종족은 농업 혁명 이전에 멸종될 것이다.

#### IV. 농업 혁명과 국가의 탄생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의 전쟁과 수인종끼리의 전쟁은 많은 차이가 있다. 사피엔스는 언어가 있었고, 결집력이 있었으며, 실

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은 굉장히 빠르게 사피엔스에게 인류의 왕 자리를 넘겨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사피엔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인종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의 전쟁은 절대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경쟁만큼이나 빠르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병력 차가 있더라도 그들에겐 언어가 있다. 서로 다른 수인종끼리 결집할 수 있으며, 이 차이는 전쟁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바꾸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혁명 전까지는 인류가 걸어왔던 길과는 달리 전국시대의 중국과 같이 수많은 작은 동맹들이 존재하는 혼돈의 시대였을 것이다.

하지만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순간 그 균형은 깨지게 된다. 농업 혁명으로 인해 잡식성 수인과 초식성 수인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육식성 수인은 농업혁명의 영향을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 혁명으로 인해 동물의 가축화가 일어났지만,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의 농업 효율로는 생산한 곡식이 집단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가축을 먹여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랑 생활을 선택했을 텐데, 유랑 생활은 농업 혁명 이전의 수렵채집인들의 생활과 비슷한 수의 집단만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가축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를 관리할 방법이 필요하고, 또한 가축 한 마리당 곡식에 비해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은 제한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육식성 수인들은 기존과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육식성 수인은 멸종할 것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가 아니다. 원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던 수인들이 이제는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경쟁하도록 경쟁의 양상이 바뀌기 때문이다. 원래는 고정된 넓은 지역을 영역으로 하던 육식성 수인들이 이제는 넓은 땅을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정된 지역에서 살던 초식성 수인과 유랑 생활을 하던 초식성 수인들, 그리고 잡식성 수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할 것이다. 몽골의 유목 민족들이 주변의 정착 국가들에 의해서 멸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 나름의 정착민들과 다른 기술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수인종이 비슷한 힘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전국시대와 같은 국가가 생성되었으니, 이제 모든 수인종은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멸종되지 않고 현대까지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농업혁명 이후 수천 년에 이르는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 그런 망을 지탱할 생물학적 본능이 결핍된 상태에서 말이다. 결론적으로는, 불평등이 생겨났고 사람들을 서열로 구분된 가상의 집단으로 나눔으로서 가능했다[7]. 이런 계급 구조는 우연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Figure 1 참조. 수인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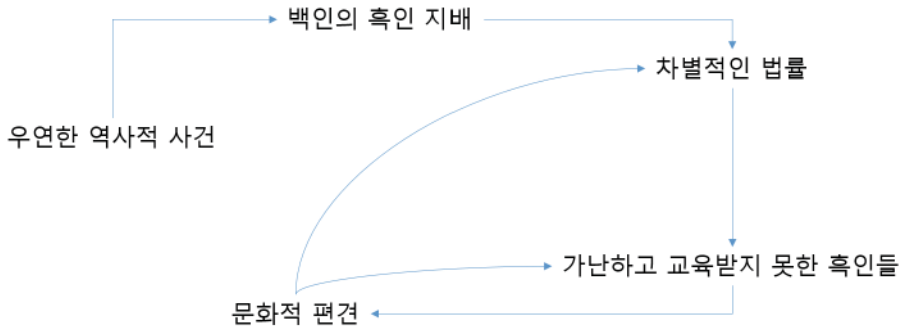


FIGURE 1. 미국의 사회적 악순환: 우연한 역사적 사건은 견고한 사회구조로 변했다.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다가 수인종의 세계는 인지혁명 이후의 결과로서 서로 다른 종이 협력해서 만든 나라가 아닌, 살아남기 위해서 단일 종 또는 2, 3개의 종족만으로 이루어진 나라일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한 종족의 모든 개체의 노예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인류의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만일 실제로 계급의 구분이 생물학적 실체에 근거를 두었다면 어떨까? 인간 사회에서는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모든 호모 사피엔스의 각기 다른 집단이 지니는 생물학적 차이는 사실상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수인종에게는 그렇지 않다. 한 번 노예가 된 종은 과학의 뒷받침을 받아 더욱 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인류학에서는 1960년 이후 종족 집단과, 종족 집단을 구성하는 특질을 가리키는 종족성(ethnicity)이라는 용어가 부족주의(tribalism)를 대체하여 등장하였다. 종족성은 하나의 완벽한 정의로 규정하기

는 힘들지만, 다양한 정의에 내포되어 있는 종족성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종족은 인종의 범주와도 일부 중첩되고, 민족의 관념과도 중첩되는 용어이지만 여기서는 수인종의 신체적 특징이 실제로 다르므로 종족의 개념을 인종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8]. 같은 종족성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종족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쉽게 어울릴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인 샌드라 리는 재일동포 가운데 노년 세대를 연구하면서 이들이 신체적 특징상으로 별 차이가 없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일본 사회에서 자신들의 종족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를 연구하였는데, 같은 한국계 후손이지만 언어나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별로 없는 자신을 재일동포 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걱정하였지만 자신이 매운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들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9]. 이와 같이 같은 종족성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라면 같은 국가를 이룩하는 것은 물론 서로 차별없이 지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종족성을 생각하더라도 수인종의 식성은 종족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

고, 이는 육식성 수인과 잡식성 수인, 초식성 수인의 차별을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족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차별은 사라질 수 없다.

## V. 결론 : 디스토피아적 세계

극장에서 보던 주토피아는 육식-초식 동물들의 미묘한 차별이 있긴 했어도 결국 해결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지만 실제의 수인 세계는 극장에서 보던 주토피아가 아닌 그 예전 스토리와 같은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육식동물이 차별을 받던지, 초식동물이 차별을 받던지, 아니면 어떤 종족이 차별을 받던지 어쨌든 어떤 종족은 노예와 같이 살아갈 것이다. 심지어는 과학의 힘을 빌리더라도 그들의 차별은 심화되기만 할 것이다. 현재의 인류가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게 된 것은 순전히 인간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제로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수인 세계라면 독일의 우생학이 정설로 받아들여질지 모른다. SSCC 1st

## References

- [1] G. Lecointre and H. L. Guyader, *The Tree of Life: A Phylogenetic Classifi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6).
- [2] P. Bethge, Ph.D. thesis, University of Tasmania, 2002.
- [3] R. Hart, *Nexus* **1**, 1 (1980).
- [4] D. R. Krawiec and D. Heflin, *J Am Vet Med Assoc* **200**, 1119-22 (1992).
- [5] Y. N. Harari,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조현욱 역 (김영사, 파주, 2015), p. 22.
- [6] V. G. Heptner and N. P. Naumov, *Mammals of the Soviet Union* (Smithsonian Institution Libraries and National Science Foundation, Washington, D.C., 1998), Vol. 2, Part 1a, p. 222.
- [7] Y. N. Harari,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조현욱 역 (김영사, 파주, 2015), p. 196.
- [8] 한국문화인류학회,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서울, 2003), p. 126-129.
- [9] 한국문화인류학회,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서울, 2003), p. 129-130.